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일본 여론 분석: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미치는 영향*

장기영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본 연구는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 참배에 대한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태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공유되지 않은 역사적 기억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국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일, 중일 간 심각한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동아시아에서의 안보환경 변화가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의 역사인식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을 원하는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은 한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예견되는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적 결과는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국내적으로 구축하려는 정치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역사에 대한 기억,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강경한 안보정책, 정상국가, 강한 이미지

I. 서론

동아시아 각국은 과거 식민지배, 태평양 전쟁 및 중일전쟁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historical memory)'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적 비난은 이러한 상이한 집단기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이며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국가 간 서로 다른 해석은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치엘리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과거 자신들의 침략전쟁

* 본 연구는 2016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과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15S1A3A20469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논문 초고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남기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는 한중과는 달리 일본은 야스쿠니 참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애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2013년 12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 이후 7년 4개월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하였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였다. 비단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정치엘리트들은 때때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하거나 공물을 보내 왔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침략 전쟁 및 식민지 지배 피해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엘리트들은 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 지지 세력은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상이한 역사적 기억들이 충돌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야스쿠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가해국가인 일본의 역사인식 부재를 비판하거나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갈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일본의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지 분석하는 “야스쿠니 참배의 수요적 측면(the demand side of high-profile Yasukuni visits)”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의 등장과 일본인의 역사인식 부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¹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절에서는 동북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일본의 고위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다루는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III절은 안보에 대한 정책선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IV절에서는 경험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변수들을 소개하고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이

¹ 장기영(2017)은 한국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안보위협과 과거사 인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용하여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V절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국제정치학적 함의에 대하여 논한다.

II.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동북아 국제정치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으로 분류된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유감을 표명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를 포함해서 2차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사망해 합사된 213만여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본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일본인으로 평가하고 있다(『서울신문』 13/08/13).²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약 21,000명의 희생자들이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남상구, 2015: 202).

A급 전범은 1978년 10월 17일 야스쿠니에 합사되었고 1979년 4월에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이후 20회에 걸쳐 총리의 참배가 있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 참배부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1986년부터 나카소네 총리는 A급 전범 합사가 침략당한 이웃 국가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참배를 중단하였으며, 총리의 신사 참배가 본격적으로 외교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기간 내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총리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인 아베 총리는 처음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냉각되었던 한일 및 중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역시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를 참배함으로써

² “야스쿠니 신사 무엇이 문제인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12008005>(검색일: 2018. 4. 16.)

써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극명한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의 침략과 잔혹함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 A급 전범자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는 동북아 국가 간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 수상을 포함한 고위관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야스쿠니에 단순히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체가 침략전쟁을 미화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국가가 종교 법인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일본 헌법 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곽진오, 2009: 33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아베 정부는 “침략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전사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인식”(남상구, 2015: 229)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중렬(2002)에 따르면 과거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에 대하여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유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같다는 일본 고유의 사생관(死生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싸고 여전히 비극적인 침략전쟁과 공적인 전사자 추도라는 상이한 기억투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이한 역사인식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해 왔다. 다양한 관점에서 야스쿠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정치학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많은 학자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야스쿠니를 둘러싼 중일간의 외교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경제적 성장과 함께 야스쿠니 문제가 이전보다 국제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현실을 주목한다(Minamiki, 1980; Gries, 2005; Cheung, 2010). 반면에 한일 간의 관계에서 야스쿠니 문제의 본질을 찾는 연구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중일 간에 초점을 둔 연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Shibuichi, 2005; Breen, 2008; Mochizuki, 2016; Koga, 2016). 예를 들면, 코가(Koga, 2016)는 야스쿠니에 대한 한일 간 담론 차이

에 주목하며 일본의 담론은 민족주의(nationalists), 중도주의(moderates), 실용주의(progressives) 담론으로 나누어진 반면에 한국은 반야스쿠니 시각(anti-Yasukuni perspective)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외교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야스쿠니 신사에 관한 많은 정치학 연구들은 전쟁 및 역사에 대한 기억과 국가 간의 화해라는 큰 틀에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피해국과 가해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막는 부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김상준, 2005; Kingston, 2007; Lind, 2008; He, 2009; Takenaka, 2015).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중과 같은 피해국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여전히 침략전쟁과 폭압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에 가해국인 일본은 야스쿠니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관으로 여긴다고 한다.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 2006)는 야스쿠니 신사는 ‘감정의 연금술’에 의해 전사자의 슬픔과 불행을 기쁨과 행복으로 탈바꿈시키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사자를 단순히 추도하는 것이 아니라 드높여 받드는 것이야말로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말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피해국과 가해국 사이의 상이한 역사인식 속에서 두 국가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제니퍼 린드(Lind, 2008)는 국가들은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고 상대국가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니면 악의적인지를 추측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역사적 또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선의(善意)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일본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예를 들면, 시부치(Daiki Shibuichi, 2005)는 일본 보수우익의 압력이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에 청(Cheung, 2017)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총리 개인의 국내 정치적 생존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은 일본 수상 개인의 생존게임에 주목하여 그의 국내 정치적 정당성이 정부의 야스쿠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아베는 수상이 되기 전부터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정당한 정치행위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강하게 맞설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아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자민당의 보수우익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있어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BBC 13/12/26).³ 비슷한 맥락에서 딘스(Phil Deans, 2007)는 고이즈미 총리 역시 야스쿠니 방문을 통하여 극우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였기에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정성 개혁⁴이나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야스쿠니에 관한 기존의 많은 정치학 연구는 일본 고위관료들의 야스쿠니 참배의 국내적 및 국제적 영향을 다루는 “야스쿠니 참배의 공급적 측면(the supply side of high-profile Yasukuni visit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누가 일본 정치엘리트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지에 관한 “야스쿠니 참배의 수요적 측면(the demand side of high-profile Yasukuni visits)”에 대한 분석연구는 일본 우익세력의 정치적 압력을 강조하는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 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을 찬성하는 지지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관점에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에 대한 국내 정치적 동기를 규명하고 나아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가 참배가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찾아 보고자 한다.

III. 안보환경의 변화 요구와 야스쿠니 참배 지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 등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일본 헌법 전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³ “Why Japan’s Shinzo Abe went to Yasukuni Shrine.” <http://www.bbc.com/news/world-asia-25518137>(검색일: 2018. 4. 21).

⁴ 당시 일본에서는 개인 자금의 70%가 우체국에 묶여 투자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과 같은 업무를 우정성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정성 업무가 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자민당 내 하시모토파, 가메이파 등의 계파도 우정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있어 당내 반발이 있었지만 고이즈미는 민영화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는 각국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
 지해 갈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專制)와 예측, 압박과 편
 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전쟁의
 포기과 관련된 일본 헌법 제2장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국
 가의 교전권(交戰權)”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손형섭, 2014: 38).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일본은 ‘반응국가(reactive state)’로 인식되어 왔던 것
 에서 벗어나 ‘정상국가(正常國家)화’를 본격적으로 지향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
 을 구사하고 있다.⁵ 특히 2012년에 등장한 아베 내각은 자민당 내에서 계속 제
 기되어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헌법의 수정을 통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노
 려해 왔다(정일영·최용, 2015: 17).⁶ 일본은 아베 내각의 등장과 함께 미일동맹을 바
 탕으로 군사적으로 정상국가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보는 동
 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신옥희, 2012: 9-10).
 아베 정부는 1957년 ‘국방기본방침(國防の基本方針について)’을 대체하는 ‘국가안전
 보장전략’을 2013년 12월 의결하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이 아닌 “지역과 세
 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바 있다(이승주, 2014:
 6-7).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일본사회는 더욱 보
 수우경화되고 일본 국민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지도

⁵ 일본의 정상국가화란 일본 헌법 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및 ‘전력(戰力)과 국가 교전권의 불인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려는 여타의 시도를 의미한다(정일영·최용, 2015: 1).

⁶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적 경기침체, 전후 세대의 역사피로감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되는 안보불안으로 인하여 일본 사회는 더욱 보수우경화되었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였다(정미애, 2016: 131).

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중국과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일 간 경제규모가 2010년을 계기로 처음으로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⁷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일본사회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었다.⁸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 외에 2010년대에는 한국과는 독도문제로,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 문제 등으로 모든 주변 국가들과 영토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⁹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안보불안에 대한 공포가 일본 국민들을 더욱 우경화시켰던 대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10년 이후 군사대국 및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영토문제로 일본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등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강한 일본’ 및 ‘강한 국가지도자’를 요구하는 심리가 일본사회에서 대두되었다. 강경한 안보정책을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야스쿠니 문제에 있어서도 발현되어 한국과 중국 같은 피해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가지도자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사실 많은 일본

⁷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행(AIIB)을 주도하면서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5/07/22). “中 경제·군사력, 日 압도…청일전쟁 후 120년 만에 역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0/0200000000AKR20150720179000009.HTML>(검색일: 2018. 4. 21).

⁸ 2010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보복조치를 당했다. 2012년에도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국유화를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되어 중일 간 분쟁이 일어났다. 표면적으로는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당시 도쿄도지사가 센카쿠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대응 혼선 등으로 취약해진 입지를 만회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국유화 조치를 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를 앞둔 노다 정부가 선거에서의 승리를 취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여진다. 노다 정권은 정부가 영토 주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강한 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해 차기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을 하였으며 중국 국내에서는 반일 시위와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연일 이어졌다(『연합뉴스』 17/03/03; 경향신문 12/07/28). “센카쿠갈등 中 보복당한 日, 경제체질 개선 계기…‘전화위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3/0200000000AKR20170303064351073.HTML>(검색일: 2018. 4. 21). <http://www.khan.co.kr/olympic/2012/article/view.html?artid=201207082205505&code=970203>.

⁹ 예를 들어 2012년 8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한국과 일본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양국 간의 민족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인들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치엘리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수록 한국과 중국의 외교 공세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주간동아 14/04/28).¹⁰

제니퍼 린드(Lind, 2008)에 따르면 국가들은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고 피해국가의 관계개선을 하려는 가해국의 정치적 의도가 얼마나 솔직한지 아니면 적대적인지를 추측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면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정치적 의도가 적대적이지 않다고 여겨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린드는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의 ‘신호게임(signaling game)’으로 역사적 기억과 국가 간의 화해 및 협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피해국들과의 진정한 화해 및 관계개선을 바라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피해국들에게 선의가 아닌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신호게임’의 맥락에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국내 정치세력에게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강한 일본’을 원하는 일본의 정치엘리트들이나 국민들에게는 피해국들로부터의 과도한 외교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는 ‘결의(resolve)’로 보여진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2010년 이후 중국의 부상, 장기불황, 3·11 대지진을 겪은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보다 공세적 외교를 추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스트롱맨(strongman)’으로서의 이미지 및 강한 리더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기 아베 정권은 ‘강한 리더십’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으며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는 야스쿠니 방문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였으며 두 국가는 아베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하여 강력한

¹⁰ “왜 그들은 야스쿠니를 참배하나”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7443/1>(검색일: 2018. 4. 21).

비판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베의 야스쿠니 방문 이후 한국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규탄하였고, 중국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였다. 미국 역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하였다 (BBC 13/12/26).¹¹

동북아 과거사 분쟁에 관한 여러 사례에서 미루어 볼 때 주변국과 민감한 국제분쟁이 있을 때 국가지도자는 국내결집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많은 정치적 지지를 받는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기존의 많은 국제정치학 연구에서는 국면전환전쟁을 통해 국가지도자가 국내결집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국면전환전쟁을 통한 안보결집이 가능한 이유는 외부위협이 있을 때에 국민들의 애국심이 고취되어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거나 엘리트 집단이 현 지도자나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기 때문이다(Zaller, 1992; Callaghan and Virtanen, 1993; Baker and O Neal, 2001; Groeling and Baum,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에서 국면전환전쟁의 비용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쟁을 통한 국내결집이 아닌 피해국들의 집단적 기억을 의도적으로 자극시켜 국내결집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일본 수상이 논란이 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대외적으로 피해국들로부터 의도적인 외교적 분쟁을 일으켜 대내적으로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을 결집시키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IV. 경험적 분석 및 평가

본 논문은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도쿄대학 타니구찌(谷口) 연구소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총선거 직후 일반 유권자 1,813

11 “China Condemns Japan PM Shinzo Abe’s Yasukuni Shrine Visit.” <http://www.bbc.com/news/world-asia-25518166>(검색일: 2018. 4. 21).

명과 2016년 5월 16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89명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¹² 연구의 핵심적인 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설문 응답자의 강경한 안보정책에 대한 선호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견해이다. 타니구치 연구소의 설문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경책, 선제공격에 대한 당위성, 일본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묻고 있기에 본 논문의 경험적 분석을 위한 이상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지지여부에 대한 이항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에 대한 지지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를 나타내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 지지, 선제공격 지지, 방위력 강화 지지와 같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제공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와 “일본의 방위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각각의 주장에 대하여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들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표 1-1, 표 1-2와 같다.

그림 1은 3차 스플라인(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일본 유권자의 안보정책 선호에 따라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에 대한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ies) 정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x축은 안보정책 선호(‘온건-강경’)를 나타내며 1에서 5까지 각각 5단계 척도(5-point scale)를 사용하였다. 표 1의 변수설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1과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온건한 안보정책을 선호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5와 가까울수록 강경한 안보정책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y축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예측확률을 나타낸다. 그림 1은 일본 유권자들이 강경한 안보정책을 선호할수록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¹² 본 여론조사는 일본에 있는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3,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전 12월 13일 조사표를 발송하고 2015년 1월까지 1,813명의 유효회답을 얻었다. 회수율은 60.4%이다.

표 1-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2014년 일반 유권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	0.318	0.466	0	1	1765
북한에 대한 압력 지지	3.387	1.180	1	5	1746
유사시 선제공격 지지	2.870	1.158	1	5	1750
방위력 강화 필요	3.533	1.125	1	5	1760
헌법개정 필요	3.027	1.247	1	5	1774
자민당에 대한 호오도	52.007	22.531	0	100	1619
여성	0.530	0.499	0	1	1799
세대	4.067	1.646	1	6	1793
교육수준	2.892	1.466	1	6	1774
자민당 정당일체감	0.408	0.492	0	1	1790
아시아 외교 중시	2.962	1.128	1	5	1747
경제에 관한 평가	2.378	1.003	1	5	1795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	3.380	1.159	1	5	1794

표 1-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2016년 참의원 입후보 정치인)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	0.316	0.466	0	1	389
북한에 대한 압력 지지	3.139	1.279	1	5	368
유사시 선제공격 지지	2.501	1.454	1	5	365
방위력 강화 필요	3.240	1.470	1	5	371
헌법개정 필요	3.378	1.676	1	5	368
진보-보수	4.845	2.028	0	10	349
자민당 정치인	0.190	0.393	0	1	389
여성	0.247	0.432	0	1	389
세대	2.740	1.138	1	5	389
아시아 외교 중시	2.722	1.237	1	5	370
아베 정권 경제정책에 관한 평가	2.596	1.620	1	5	371

표 2와 표 3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누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하여 지지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2에서는 2014년 12월 14일 제47회 중의원 총선거 직후 일본의 일반 유권자들이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견에 대하여 표방한 지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표 3에서는 참의원 선거 입후보자 389인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6일부터 참의원 선거개표일인 7월 10일까지 회수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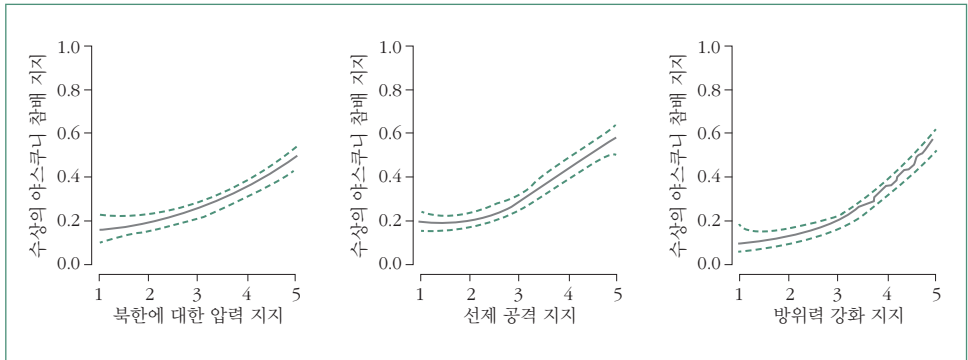


그림 1 안보정책 선호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와의 연관성(일반유권자)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를 활용하여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정치엘리트들의 태도를 연구하였다. 표 2와 표 3의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사용하여 유권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사용한 핵심 독립변수는 개별 응답자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이다. 우선 모형 1, 2, 3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지지, 선제공격지지, 방위력 강화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모형 4에서는 세 개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이 밖에 여성, 세대, 교육수준, 집권당인 자민당과의 정당일체감, 아시아 외교중시, 경제에 관한 긍정적 평가, 현 수상인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와 같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95%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지지, 선제공격지지, 방위력 강화 변수가 종속변수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즉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더욱 압력을 행사해야 하고, 일본이 외부세력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본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하여 더욱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1, 2, 3, 4의 결과를 볼 때 일본 정부의 강경한 안보정책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권자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는 1946년 공포된 헌법 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및 ‘전력과 국가 교전권의 불인정’을 개정하거나 조문의 해석 변경을 통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서의 일

표 2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미치는 영향(일반 유권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북한에 대한 압력 지지	0.424** (0.060)			0.254** (0.066)	0.243** (0.066)
유사시 선제공격 지지		0.391** (0.058)		0.161* (0.065)	0.133* (0.067)
방위력 강화 필요			0.610** (0.070)	0.464** (0.079)	0.400** (0.080)
헌법 개정 필요					0.220** (0.061)
자민당 호오도	0.010* (0.004)	0.011* (0.004)	0.007+ (0.004)	0.009* (0.004)	0.007+ (0.004)
여성	-0.053 (0.119)	-0.002 (0.120)	0.058 (0.121)	0.128 (0.124)	0.145 (0.125)
세대	-0.055 (0.039)	-0.036 (0.038)	-0.005 (0.038)	-0.040 (0.039)	-0.027 (0.040)
교육수준	-0.063 (0.043)	-0.048 (0.043)	-0.073+ (0.043)	-0.050 (0.044)	-0.048 (0.045)
자민당 정당일체감	0.585** (0.140)	0.516** (0.142)	0.459** (1.142)	0.497** (0.145)	0.506** (0.146)
아시아 외교 중시	0.037 (0.054)	0.017 (0.056)	0.025 (0.055)	0.049 (0.057)	0.050 (0.058)
경제에 관한 평가	-0.073 (0.070)	-0.079 (0.070)	-0.086 (0.070)	-0.086 (0.072)	-0.102 (0.073)
아베수상에 대한 지지	0.271** (0.076)	0.213** (0.076)	0.176* (0.077)	0.163* (0.080)	0.127 (0.082)
Constant	-3.550** (0.450)	-3.084** (0.432)	-3.923** (0.456)	-4.854** (0.498)	-4.996** (0.501)
Log. Likelihood	-853.094	-856.306	-839.979	-809.728	-798.154
N	1525	1523	1530	1510	1502

주: 로지스틱 모형에서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 **p<0.01 *p<0.05 +p<0.1, two-tailed test.

본에 대한 지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의 등장과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미치는 영향(정치엘리트)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북한에 대한 압력 지지	1.844** (0.284)			0.834* (0.352)	0.925* (0.390)
유사시 선제공격 지지		1.524** (0.240)		0.819** (0.229)	0.890** (0.231)
방위력 강화 필요			2.230** (0.444)	1.209* (0.467)	0.767 (0.646)
헌법 개정 필요					1.314* (0.512)
진보-보수	0.707** (0.163)	0.495* (0.225)	0.429* (0.184)	0.332 (0.223)	0.274 (0.240)
자민당 정치인	0.856 (0.553)	0.813 (0.588)	0.926 (0.605)	1.287+ (0.665)	1.076 (0.746)
여성	0.524 (0.445)	0.731 (0.488)	0.637 (0.503)	0.542 (0.605)	0.991 (0.674)
세대	-0.012 (0.172)	-0.076 (0.180)	-0.066 (0.150)	-0.055 (0.179)	0.092 (0.229)
아시아 외교 중시	-0.345 (0.238)	-0.353 (0.237)	-0.111 (0.244)	0.066 (0.304)	0.400 (0.365)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한 평가	0.224+ (0.119)	-0.035 (0.138)	0.232 (0.129)	-0.036 (0.146)	-0.203 (0.204)
Constant	-11.364** (1.867)	-7.217** (2.180)	-12.575** (2.260)	-12.991** (2.432)	-17.727** (2.837)
Log. Likelihood	-95.183	-89.367	-92.105	-74.414	-65.951
N	346	344	348	343	340

주: 로지스틱 모형에서 괄호 안은 robust standard errors. **p<0.01 *p<0.05 +p<0.1, two-tailed test.

모형 5의 결과에 의하면 헌법 개정 필요성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도 유권자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강경한 안보정책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한국, 미국,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예상되는 외교적 반발 속에서도 당당하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는 일본 수상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2의 통제변수들 중 자민당 호오도(feeling thermometer),

자민당 정당일체감,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 역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응답자의 성별, 세대, 교육수준, 아시아 외교 중시 및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변수들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은 2016년 참의원 통상선거에 입후보한 정치인 3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의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서와 같이 북한에 대한 압력의 필요성과 유사시 일본의 선제공격을 지지하거나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믿는 정치엘리트일수록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1, 2, 3, 4의 결과에 따르면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5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변수를 통제하여도 안보에 대한 변수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3의 회귀분석결과는 일본의 정상국가화 논의를 찬성하는 정치엘리트들이 이웃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기존의 많은 정치학 연구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의 국내적 및 국제적 영향을 다루는 “야스쿠니 참배의 공급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본 연구는 일본사회에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지지계층을 규명하는 “야스쿠니 참배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분석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국민과 정치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을 찬성하는 지지계층을 규명함으로써 합리적인 관점에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방문에 대한 국내 정치적 동기를 밝히고 나아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가 참배가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국민 및 정치엘리트들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와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에 대한 통계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 유권자 1,813명

과 389명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도쿄대학 타니구찌(谷口) 연구소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과 정치엘리트들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피해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서의 일본의 등장과 일본인의 역사인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일본 수상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에게 피해국들의 과도한 외교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는 ‘결의(resolve)’를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제2기 아베 정권은 ‘강한 리더십’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으며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였고 두 국가는 아베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야스쿠니 참배의 수요적 측면에 대한 분석연구로서 일본 수상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수상의 정치적 선호 자체가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이를테면 아베 이후 유력한 수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의 경우에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는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문화일보』 18/04/20).¹³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의 국내 정치적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참배의 수요-공급의 정치적 동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본국민의 강경한 안보정책 선호가 일본사회 내에서 어떻게

13 “자민당 파벌, 9월 총재선거 勢다툼 가열...아베 끌어내리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2001033330129001>(검색일: 2018. 4. 21)

구성되었거나 변화해 왔는지 밝히는 작업 역시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가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에게 피해국들의 과도한 외교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는 결의를 의미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8년 5월 10일 | 심사일: 2018년 5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8일

참고문헌

- 곽진오. 2009. “일본인과 靖國神社 - 참배와 반대에 있어서 신사를 둘러싼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4, 309-337.
- 김상준. 2005.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39권 5호, 215-236.
- 남상구. 2015.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0호, 201-237.
- 다카하시 데즈야(高橋哲哉) 저. 현대송 옮김. 2006. 『결코 피할 수 없는 야스쿠니 문제』, 서울: 역사비평사.
- 문중렬. 2002. “일본인들이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참배 용인하는 이유-죽으면 모두 부처님?” 『민족21』, 117-119.
- 손형섭. 2014.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 현황과 쟁점.” 『의정연구』 20권 1호, 35-60.
- 신옥희. 2012.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통합적 이론으로서 위협균형/위협전 이론,” 『아시아리뷰』 2권 1호.
- 이승주. 2014.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21세기 외교전략: 보통국가의 다차원화.” 『EAI국가안보 패널보고서: 동북아 데탕트-탈냉전 국가대외전략 비교연구』, 1-22.
- 장기영. 2017.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57집 4호, 45-73.
- 정미애. 2016.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세력-제2차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67호, 129-152.
- 정일영·최영. 2015. “미국의 중국 딜레마와 일본의 정상국가화.” 『통일연구』 19권 2호, 5-31.
- Baker, William D. and John R. Oneal. 2001. “Patriotism or Opinion Leadership? The

- Nature and Origins of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5(5), 661-687.
- Breen, John. 2008. “Introduction: a Yasukuni Genealogy.” in *Yasukuni, the War Dead, and the Struggle for Japan’s Past*. eds. John Bre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22.
- Callahan, William A. 2006. “History, Identity, and Security: Producing and Consuming Nationalism in China.” *Critical Asian Studies* 38(2), 179-208.
- Cheung, Mong. 2017. “Japan’s China Policy on Yasukuni under Abe (2012-2015): A Political Survival Interpret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6(1), 62-78.
- Cheung, Mong. 2010. “Political Survival and the Yasukuni Controversy in Sino-Japanese Relations.” *Pacific Review* 23(4), 527-548.
- Deans, Phil. 2007. “Diminishing Returns?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Nationalisms.” *East Asia* 24, 269-294.
- Fukuoka, Kazuya. 2013. “Memory, Nation, and National Commentation of War Dead: A Study of Japanese Public Opinion on the Yasukuni Controversy.” *Asian Politics and Policy* 5(1), 27-49.
- Gries, Peter H. 2005. “China’s New Thinking on Japan.” *The China Quarterly* 184, 831-850.
- Groeling, Tim and Matthew A. Baum. 2008. “Crossing the Water’s Edge: Elite Rhetoric, Media Coverage, and the Rally-Round-the-Flag Phenomenon.” *Journal of Politics* 70(4), 1065-1085.
- He, Yanan. 2009. *The Search for Reconciliation: Sino-Japanese and German-Polish Relations Since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ngston, Jeff. 2007. “Awkward Talisman: War Memory, Reconciliation, and Yasukuni.” *East Asia* 24(3), 295-318.
- Koga, Kei. 2016. “The Yasukuni Question: Histories, Logics, and Japan – South Korea Relations.” *Pacific Review* 29(3), 331-359.
- Lind, Jennifer. 2008.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Minamiki, George. 1980. “The Yasukuni Shrine Incident and the Chinese Rites

- Controversy.” *The Catholic Historical Review* 66(2), 205-229.
- Mochizuki, Mike. 2010. “The Yasukuni Shrine Conundrum: Japan’s Contested Identity and Memory.” eds. Mikyoung Kim and Barry Schwartz. *North-east Asia’s Difficult Past: Essays in Collective Mem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Memory Studies, 31-52.
- Shibuichi, Daiki. 2005. “The Yasukuni Shrine Dispute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Japan.” *Asian Survey* 45(2), 197-215.
- Takenaka, Akiko. 2015. *Yasukuni Shrine: History, Memory, and Japan’s Unending Postw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f the Japanese Public and Political Elites' Attitudes toward the Prime Minister's Controvers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Kiyoung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Japanese public and political elites' attitudes toward their Prime Minister's (PM) controvers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It particular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on the Japanese public and political elites' support for PM's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While visits by Japanese PM to the Yasukuni Shrine may stir strong anti-Japanese sentiments in East Asia by touching on sensitive issues of wartime memory, many Japanese conservatives understand that the Japanese PM may visit the Yasukuni to honor the nation's war dead. Japan has been labeled "abnormal" because the Japanese constitution prevents the country from using force abroad and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My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political elites and citizens who call for the normalization of their country with regard to the military buildup are more likely to support PM's controversial visits to the Yasukuni Shrine. This result implies that given expected concerns and warnings by neighboring countries, the Japanese PM may strategically visit the Yasukuni to send costly signals of his resolve to the domestic citizens and political elites.

Keywords | Historical Memory, Yasukuni Shrine, Shinzo Abe, Normal State, Tough Image

